

보도시점 2023. 10. 6.(금) 11:30 배포 2023. 10. 6.(금) 10:00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를 포함해 2차 재원보충에 총 93억불 조성

- 녹색기후기금(GCF) 고위급 공여회의 개최

녹색기후기금(GCF*)은 10.5(목) 독일 본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회의에서 2차 재원보충** 결과 총 93억불이 조성되었음을 발표하였다.

* **Green Climate Fund**: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 인천 송도에 소재

** 회원국 정부 등으로부터 공여를 약속받는 재원 조달 절차로, 녹색기후기금은 과거 두 차례 재원 조달을 통해 총 203억불(초기 103억불, 1차 재원보충 100억불)을 조성

동 회의는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보충 과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공여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9월) 등을 계기로 공여를 이미 선언한 14개 국가*들은 각국의 공여 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11개 국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여액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고위급 기후 대화에서 각국은 향후 기금 운영의 청사진을 조망하며 녹색기후기금의 기회와 도전, 국제 기후 재원의 동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모나코, 캐나다,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룩셈부르크, 스페인, 프랑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공여발표 시기순)

**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리히텐슈타인, 몽골,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핀란드, 헝가리 (가나다 순)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에 국제사회의 2차 재원보충 참여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차 재원보충 공여액 대비 1.5배 규모인 3억불 공여를 선언하는 등 녹색기후기금 2차 재원보충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재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3억불 공여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이 재원 확충과 함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국제 기후협력을 선도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치국으로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이 향후에도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혜경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장효은 (hyoeunjang@korea.kr)
			연구원	이용진 (yjlee14@korea.kr)

참 고

GCF 2차 재원보충 국가별 공약

(단위 : 백만)

순위	국가	공약(USD 환산)
1	독일	2,160.9
2	영국	1,999.9
3	프랑스	1,739.6
4	일본	1,224.2
5	캐나다	333.7
6	노르웨이	305.6
7	대한민국	300.0
8	스페인	243.1
9	덴마크	232.2
10	오스트리아	172.9
11	벨기에	162.1
12	네덜란드	151.3
13	핀란드	64.8
14	룩셈부르크	54.0
15	아일랜드	43.2
16	뉴질랜드	15.0
17	체코	4.0
18	모나코	3.6
19	아이슬란드	3.2
20	슬로바키아	2.4
21	슬로베니아	1.6
22	리히텐슈타인	0.4
23	헝가리	0.3
24	이스라엘	0.1
25	몽골	0.1
공약액 합계		9,218.2
총 조성 규모*		9,322.2

* 총 조성 규모는 국가별 공약액과 조기납입되는 재원의 예상운용수익 등을 합산한 액수